

우리의 마음 많다

목포삼학도 민자유치 호텔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 시민포럼 (2021. 12. 22. 수)



목 차

02 신년인사

03 2022년 사업계획

05 특별기고

07 회원기고

08 독후감

09 활동보고

11 회계보고

13 환경영화 / 서적

14 환경상식

15 총회안내

16 신입회원 안내 / 광고



함께하는 2022년을 희망합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인사는 요즘 시기에 가장 적절한 인사라 여겨집니다. 지난 두해, 그리고 올 한해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고 평상을 찾을 찾는 염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그나마 소식지의 지면을 빌어 회원님들께 인사를 올립니다.

작년 한해는 그 어느 해 보다 아쉬움과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하는 한해였습니다. 코로나 정국을 핑계로 하지 못한 사업이 많았고 용트림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정리하지 못하고 이어가는 사업도 많아서 그 부족한 아쉬움을 회원님들께 고하고 2022년 새해를 함께 설계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포환경운동연합의 건실한 활동을 위해서는 정책과 교육, 실천이라는 세 개의 축으로 든든히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한해를 되돌아 보면서 우리가 처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를 찾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찾은 세가지 문제를 회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회원님들의 활동참여와 실천의 확장입니다. 가장 어려운 과제로, 넓은 환경운동 영역에서 회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할 수 있는 활동계획을 제시하는 일이 결코 쉬울 수는 없지만 꼭 해야 하는 길이라고 여깁니다. 회원님들께서 회비를 내는 그 자체가 중요한 참여와 실천의 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야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이 따르는 참여와 실천이 함께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둘째, 환경운동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의 강화입니다. 분명한 목표와 방향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성은 집행부와 회원, 회원과 회원간의 신뢰성을 높이고 참여와 실천의 길을 여는 아주 중요한 방편입니다. 또한 관과 시민을 움직이는 큰 동력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포환경운동연합은 이 부분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이제는 이 지역에서 6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가장 큰 자생 시민사회단체인 우리 목포환경운동연합이 지역 환경운동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관과 시민의 참여를 견인하는 일에 더 이상 주저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회원 확대를 통한 재정 안정성 구축입니다. 첫째와 둘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1000명의 회원시대를 열자”는 우리 목포환경운동연합의 구호는 재정확보라는 의미가 깊게 자리합니다. 그러나 이 구호는 비단 재정확보의 의미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1000명의 회원은 그 자체가 커다란 힘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눈과 귀를 우리에게 모으게 하고 특히 정치인과 관료들이 우리의 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게 합니다. 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원이 늘어갈수록 회원들의 자부심은 커지고 이에 따라 활동의 동력도 커집니다. 이렇듯 회원 확대의 순기능은 무한하게 뻗어 갈 것 입니다.

회원 여러분! 이제 환경운동은 생명을 위한 운동이 되었습니다. 나를 살리는 길! 지역을 살리는 길! 나라를 살리는 길! 나아가 지구를 살리는 길에 환경운동이 있습니다. 이 운동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앞장서서 함께하는 회원님들과 저는 자부심과 자랑에 인색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여깁니다.

2022년 한해는 이러한 자부심과 자랑이 더 높게 더 넓게 펼쳐내는 장을 열어 봅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점점 더 엄혹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회원님들과 가족의 건강에 유념합시다. 다시 한번 참여의 장에서 실천의 장에서 회원님들의 만남을 기대하며 새해 인사를 갈음합니다.

2022. 1. 13.

공동의장 최 송 춘 올림

2022년 사업계획(안)

시민 과학 실천으로 기후재앙 극복

※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2021년 축소되거나 진행 못한 사업을 2022년 사업계획에 반영했습니다.
 ※ 전문가와 비전문가인 시민, 대중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참여에 기반한 과학 활동을 일컫습니다.

중점사업

1) 기후위기대응 활동

- 현재 대부분의 환경문제는 기후위기와 관련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님. 이러한 기후위기 문제에 공감하고, 진지한 기후위기 대응 노력으로, 시민들의 삶에 구체적인 행동변화를 이끌어 낼 시민운동을 전개하고자 함
- 청소년기자단 모집 (~3월 중)
- 캠페인 진행 (월 1회 이상)
 - 전국단위 대응활동 참여, 지역 캠페인 병행
- 기후위기 대응 실천 교육: 청소년 대상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 진행)
- 2020년 활발히 활동했던 일회용추방특별위원회 활동을 장례식장 뿐 아니라 대중적인 활동으로 확대 전개 (회원 환경실천 현장 제정)
 - 회원 대상으로 실천운동 캠페인, 환경교육용 키트 개발을 위한 사전 준비
- 대 시민 강연회 2회 (상/하반기)
 -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 이슈 중심으로 전문 강연가 초청 온·오프라인 진행

2) 삼학도 호텔 백지화 활동

- 2021년 6월 사업의향 공모를 통해 20여 년간 복원(공원)화를 추진했던 삼학도에 호텔사업 추진 대두됨. 목포 시민의 의견수렴 없이 절차적 결함이 있음에도 필요한 사업인 마냥 추진하고 있음
- 시민대상 서명, 캠페인, 전단지 배포, 일인시위, 현수막캠페인, SNS홍보 병행진행하며 연대단체(70여 곳)와 함께 삼학도 호텔 건립 계획 백지화를 위한 활동 집중
-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 제소, 국민청원운동 준비

3) 영산강 (하구) 생태복원 운동

- 2021년은 목포환경운동의 모태인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첫걸음을 뗀다면 2022년에는 대선 공약화를 실현시키고, 시민과 함께 하는 대중적인 활동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임
- 상반기 대선과 지방선거에 맞춰 큰 틀의 영산강 해수유동을 통한 생태복원 공약 채택과 실현을 위해 노력
- 하반기는 상반기의 활동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활동방향 재설정
- 소요예산: 500만원

4) 창립25주년 기념사업

- 목포환경운동연합의 새 전환점 마련하기위해 2022년 연중 기념사업 진행
- 실내외 기념행사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진행) 비전선포, 회원과 함께하는 슬로건 등 공모전, 초청 강연회
- 함께 활동하는 단체, 기관 MOU 체결
- 회원배가 캠페인, 창립회원 간담회
- 후원행사: 창립기념행사위원회 구성후 세부계획 전달 (후원목표 3000만원)

2022년 동호회 활동계획(안)

22년도 2개 동호회 통합으로 5개 동호회 운영 예정

지방빼고 건강더하기

- 구성원(8) 회장(서영옥), 회원(양수민, 유혜정, 이진아, 임경숙, 장유선, 조애순, 진지연)
- 활동계획 지방빼고 건강더하기와 뜨개마루 동호회 통합하여 다양한 활동 이어가고자 함

뜨개마루

- 구성원(8) 회장(조애순), 회원(서영옥, 양수민, 유혜정, 임경숙, 장유선, 진지연, 최승희)
- 활동계획 동호회 통합으로 인한 활동명 변경 → 다이어뜨(다이어트 + 뜨개)
두 동호회를 합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자 함. 모든 회원이 각자 잘하는 분야에 대해 강의하며 자체 활동을 이어 갈 계획(요리, 뜨개, 자수, 바느질, 생활 공예 등), 진지연 문화해설사와 함께 하는 목포 걷기 활동(연 10회 내외)

부귀영화

- 구성원(7) 회장(김애숙), 회원(남주연, 박금단, 박종선, 양승희, 우성주, 최송춘)
- 활동계획 상반기 목포환경운동연합 밴드에 동호회 활동을 알릴 계획, 영화를 통한 환경보호의 가치를 공유하여 많은 회원들과 함께하고자 함. 여러 이유로 못했던 21년도 계획을 22년도에 다시 실천하고자 함. 분기별 주제 관련 영화 관람으로 1분기-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문제 / 2분기-대기오염문제 / 3분기-제로웨이스트 실행 / 4분기-토양 및 수질 오염문제

에코트레킹

- 구성원(10) 회장(최정삼), 회원(강덕수, 김영호, 박기철, 소혜인, 양영숙, 이방수, 조상현, 지이화, 차용훈)
- 활동계획 매월 1회 이상 트레킹 실시, 회원확보 3명

에코리딩

- 구성원(6) 회장(김태수), 회원(류은경, 송예희, 우성주, 이진아, 최순재)
- 활동계획 정기적인 독서 토론과 아울러 지역의 환경 문제와 관련된 장소의 답사 및 심각성 공유.
환경관련 영화 관람과 문화행사 참여. 기후위기 관련 긴급 현안에 대응하는 일인 시위 참여

지구를 구하는 발걸음

- 구성원(11) 회장(김재혁), 회원(김영식, 민경관, 김애숙, 이송환, 최국진, 박성욱, 김성길, 김기영, 김한석, 장관호)
- 활동계획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축구동호회에서 플로깅 동호회로 전환함. 쓰레기 성상분석 후 1회용품 안쓰기 및 재활용 캠페인, 분기 1회 목포환경운동연합 사무국과 함께 하는 환경캠페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아이 스펙 재활용 캠페인 및 상인 나눔 계획
분기별 환경상(참가자 대상), 자녀(가족)와 함께 하는 플로깅 기획, 참가학생 대상 환경글짓기 공모, 활동내용 각 개인별 SNS공유

삼학도에 호텔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목포의 공유자산 현장’ 만들기를 제안하며

글 / 주용기 (전북대학교 전임연구원)
사진 / 국순천 (회원)

목포의 상징인 삼학도를 사유화시키는 행위를 철회해야

목포시가 목포항 옆 삼학도의 간척지에 민자유치를 통해 20층의 호텔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삼학도는 유달산과 함께 목포의 상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곳이다. 주변이 간척이 되어 지금은 섬은 아니지만 여전히 목포를 찾는 사람이라면 유달산과 삼학도를 떠올린다. 그리고 주변 섬과 제주도에서 출발한 여객선에 승선했다가 유달산이 보이다가 삼학도가 가까이 다가오면 목포항에 다다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유달산과 삼학도는 목포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따라서 유달산과 삼학도는 목포 시민, 더 나아가 모든 국민과 후손에게 남겨져야 할 자연유산이자 공유자산이다.

그런데 목포시가 공유자산인 삼학도에 개인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어 호텔 건설을 허가해주려고 하고 있다. 이는 결국 삼학도를 사유화시키는 계획이라 하겠다. 더욱이 호텔 건설 예정지가 대부분 국공유지이기에 아주 특혜 사업의 전형이라 하겠다. 이 같은 계획은 감사청구 대상이며, 절대로 추진해서 안 되는 특혜사업이다.

만약 호텔 건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삼학도는 호텔 소유자의 앞마당이자 호텔 손님들이 주로 이용하는 유흥지로 전락할 것이며, 일반 목포시민들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곳이 될 것이 뻔하다. 더욱이 호텔이 들어서버리면 목포의 구시가지 어디서나 바라다 보이는 삼학도와 주변 영산강 하구의 바다 풍경이 호텔로 가로막혀 경관 및 조망권을 훼손하게 될 것이 뻔하다. 또한, 목포항을 이용하는 많은 승객들에게도 조망권의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비민주적인 목포시의 행정 행위를 중단해야

목포시민의 공유자산인 삼학도에 목포시가 일방적으로 특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주 비민주적인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군사독재 정권을 지나서 민주사회로 전환이 급속도로 진전되는 상황에서 목포시는 이를 다시 역으로 되돌리는 행위라 하겠다. 지금도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 목포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목포시 행정이 일방적으로 특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하고 있다.



1980년에 일어난 5·18 광주민중항쟁과 함께 목포에서도 뜻있는 많은 시민들이 민주화 요구와 함께 전두환 독재타도를 외쳤으며, 일부 시민들은 감옥에 구속되어 고초를 겪기도 했다. 당시 목포가 정치인 김대중의 활동 본거지로서 여겨져 독재정권 시대에 목포가 지역차별과 탄압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역사적 아픔과 경험을 통해 많은 목포시민들은 목포시의 행정이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협치가 이루어지길 희망했다고 본다. 하지만 목포시의 행정은 일부 정치세력의 야욕을 채우는 곳으로 전락시켰고, 소수 기득권을 위한 정책 추진과 특혜사업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영산강 하굿둑을 가로막고 주변 갯벌을 매립하는 대규모 간척사업을 추진했으며, 목포대교 건설과 목포신항 건설, 유달산에 케이בל카 건설, 구시가지에 들어선 대형 고층 건물 등 목포시의 난개발은 심각할 정도이다. 더욱이 도시공원 주변으로 고층건물과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서서 조망권 훼손과 일조권 침해, 그리고 건물 주변으로 공기흐름이 달라져 인근 주민들에게 생활상의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저지대의 생활하수가 정화처리 되지 않고 작은 하천으로 흘러들어 악취를 풍기고 있으며, 모기, 파리떼가 서식하도록 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를 비롯해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의 주민 이용 편의성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을 통해 목포시가 얼마나 비민주적인 행정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목포시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목포시장과 목포시의 회 의원들이 목포시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목포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일부 기득권 세력에게 특혜를 주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협치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하겠다.

공유자산 현장을 만들어 목포의 민주주의와 지속가능한 목포 사회를 만들기 바라며

목포시 행정은 지금까지 일방통행식 정책을 펼쳤으며,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을 계속해왔다. 일부 사업자들과 정치인들의 야합 속에서 대다수 목포시민들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아왔다. 이제는 목포시가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하며, 모든 목포시민이 목포시의 주인으로서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목포를 만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목포 시민 전체와 앞으로 목포 시민이 될 후손들이 같이 공유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공성을 회복시켜야 하며, 공유자산을 확대하고 잘 관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삼학도를 파괴하는 특혜사업을 철회시키는 활동과 함께 많은 목포 시민들이 참여해 ‘목포시의 공유자산 현장’을 만들어 볼 것을 제안 드린다. 많은 목포시민들이 참여해 공유자산 현장을 만들어 보는 것이 목포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고 지속가능한 목포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기후위기-불평등’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다

글 | 문지영 기본소득 전남네트워크




함께 읽어 봐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 세계 대유행, 호주·캘리포니아 등지에서 발생한 거대한 산불, 아프리카에서 메뚜기 떼가 창궐, 우리도 지난해 54일간의 역대 최장 장마로 인해 폭우와 산사태 피해 등 가혹한 기후재난이 전 세계를 덮치고 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6차 보고서(2021년) 내용은 더 암울하다. 지금 이미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2050년 여름엔 북극의 얼음은 사라진다’고 전망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기후위기’를 현재 우리 세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음 세대, 미래에 닥쳐올 재앙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것이 전개되는 상황은 2020년에서 2030년 사이 10년 안에 벌어질 일들이고, 인류를 포함해서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심각한 위치에 처해 있는 것이다.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숨이 턱 막힐 만큼 상황은 심각하다.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기후위기가 전 인류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기후위기를 낳은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지역의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기후위기는 불평등하고 부정적이다. 기후위기 대응 및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인프라, 문화·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규모 변화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불평등 완화,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 내기 위한 새로운 상상이 필요하다.

‘기후위기-불평등’을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이야기한다. 원천인 공유부에 대해 모두에게 아무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최근 기후위기 대응으로 에너지 체제의 전환을 포함한 ‘그린뉴딜’이 제출되고 있다. 대규모 공적 투자가 예상되는 이 사업의 수익은 누가 가져갈 것인가? 국가가 공공자분을 확보하여 그 수익을 모두의 몫으로 분배하는 기본소득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수 있다. OECD 국가 중 20년간 탄소 배출량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고,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 총량 6위, 1인당 배출 순위 4위는 우리의 슬픈 현실이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대책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세입을 온 국민에게 탄소세 배당으로 균등분배 하는 기본소득 탄소세법(탄소세-탄소 배당)이 저탄소 경제로 들어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우리는 100년이라는 단기간에 지구 땅속에 묻혀 있는 화석연료를 집중해서 연소시키고 산업화 대비 지구의 온도를 1도를 올렸다. 향후 10년 우리가 어떤 전환을 하느냐에 따라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우리가 다중적 위기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태의 무게에 눌러 체념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그러했던 것처럼 다중의 힘으로 인간적 삶을 지속시키기를 원한다면, 그 다수의 힘과 지혜를 발휘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중략)… 기본소득은 그 정당성과 원천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간과 세계, 인간과 인간이 상호 의존적일 뿐만 아니라 공통의 기반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아이디어이다. …(중략)… 언제나 말하듯이, 기본소득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리얼리스트들의 로드맵, 55쪽 인용.

 소식지에 올리고 싶은 글이 있으면 사무국(061-243-3169)으로 연락주시시오



채식하는 중입니다

글 | 이진아 회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비건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동물과 환경, 건강을 위해 실천한다고 한다. 내 경우는 구제역과 조류독감으로 반경 몇 km 이내 축사의 동물들을 살처분한다는 소식을 기사로 접하고, 다큐멘터리 <잡식 가족의 딜레마> 그리고 『아무튼 비건』을 통해 느꼈던 불편하고, 걸끄러운 마음에서 출발한다.

오랜 시간에 거쳐 고기는 맛있고, 옳다는 식의 광고를 무의식중에 접하며 학습해왔다. 거리 곳곳에 고깃집이 분포해 있다. 온라인 쇼핑, 배달 앱으로 주문하면 집 앞에서 고기를 받을 수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한껏 보장한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대량생산, 공장식 축산 시스템은 과도한 육식 문화를 가져왔다. 좁은 공간에서 수많은 가축을 사육하며, 끊임없이 성장촉진제와 항생제를 투입한다. 동물 학대, 분뇨와 악취, 수질오염, 토양오염, 건강문제, 질병, 탄소배출로 인한 기후위기, 사료 재배를 위한 무리한 산림훼손 등 문제가 있다.

소, 돼지, 닭의 평균 자연수명은 20, 15, 11년이다. 식용동물이라는 이유로, 소는 30개월, 돼지는 6개월, 닭은 35일이 지나면 도축된다. 인간에게 고기와 달걀, 우유, 가죽 등을 제공하는 동물들의 죽음을 유튜브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아무튼, 비건』은 고기를 아예 먹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닌, 과도한 육식을 줄이자는 것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생명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는지 되돌아보게 한다. 나아가 채식을 지향하면서 어떻게 건강한 식단을 구성할 수 있을지 고민할 때이다. '비건'은 동물로 만든 제품의 소비를 거부하는 사람이자, 사회운동을 지칭한다. 저자는 '완벽한 비건은 없지만, 지구와 동물에 끼치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건강과 환경, 윤리적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 비건'이라고 말한다. 비건 운동은 소수자 운동과 닮았다. 개인의 신념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존중받아야 할 부분인데, 먹는 것은 "왜 안 먹니?" 물음과 함께 쉽게 침범하고, 강요한다. 비건 운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전보다 조금 늘었지만, 보다 확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채식을 확대하고 반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제도적인 여건이 필요하다.

비건을 지향하는 친구 이야기를 여기 옮겨 적는다. 초중고 때 채식을 실천하며 도시락을 들고 다녔고,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지 못해 외로움도 느꼈다고 한다. 채식에 대한 이해가 적어서 맨밥에 김을 채식으로 생각하는 이도 있다고 했다. 학교에서 먹거리, 채식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이 채식을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년 기준으로 서울 초중고 월 2회 그린푸드데이, 부산 초중고 월 1회 채식의 날, 권장, 인천 초중고 월 1회와 주 1회 고기 없는 월요일, 광주는 시범학교 대상으로 주 1~2회 채식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목표를 비롯하여 전남권역의 각 초중고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더는 미루지 말고, 공공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을 도입하길 바란다.

※ 채식관련 자료 - 한국채식연합(<https://www.vege.or.kr/>) / 채식을 권하는 의사들의 모임-베지닥터 / 잡지<비건>/ 채식식당소개-채식한끼 어플



11월

- 01일(월) 성매매근절 일러스트 공모 작품 전시회 오프닝 참여 / 해안쓰레기모니터링 정산서 제출
전남민주진보교육실천회의의 목포 구성 논의
- 02일(화) 진도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기자회견(목포고용노동지청) / 전남 국처장단회의(온라인)
시내버스 시민참여단 1차 토론회 참여
- 03일(수) 영산강위원회 나주시 용역 중간보고, 토론회 / 여수시민협의회 버스운영정책 관련 회의(온라인)
- 04일(목) 목포과학대학교 편의점 협약상패 전달, 분리배출 홍보문구 부착 / 함께사는길 잡지 우편발송(48통)
진보당 전남도당 지도위원 민접기 면담
- 05일(금) 민주시민교육자문단 회의
- 06일(토) 프리하당 행사 시민셀러 참여 07일(일) 세월호 부스 지킴이
- 09일(화) 시내버스 시민참여단 2차 회의의 참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 위한 정책간담회(김수미 시의원) / 6.15 집행위회의(OZ카페)
- 10일(수) 목포과학대학교 분리배출함 설치, 협약 상패전달
- 11일(목) 윤석열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방문 반대 기자회견(연대) / 삼학도지킴이 SNS홍보팀 간담회(온/오프라인)
- 13일(토) 생태기행 고하도(13명) 14일(일) 지구를 지키는 발걸음 모임
- 16일(화) 삼학도지킴이 홍보활성화를 위한 기획회의
- 17일(수) 목포시내버스 공영제 촉구 1만명 서명 참여요청(카톡 발송)
- 19일(금) 전남농아인협회 수어통역사 면담
- 20일(토) 에코트레킹 모임 21일(일) 지구를 지키는 발걸음 모임
- 22일(월) 소식지 우편발송(532통) / 에코리딩 모임
- 23일(화) 홍준위 1차 회의(1/20,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 뜨개마루 모임
목포민주진보교육실천회의의 목포교육회의 준비위원회 결성식(목포하당청소년문화센터)
- 24일(수) 호남권 물포럼 참석 / 부귀영화 모임
- 25일(목) 제240차 집행위원회 / 자원순환 사업 최종보고 발표회
서산온금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목포시의회에 의견서 제출
- 26일(금) 신안 염전 노동인권 문제 해결촉구 전남인권단체 기자회견
- 27일(토) 청소년환경기자단 모임(2040 영화다큐 관람) 28일(일) 지구를 지키는 발걸음 모임
- 30일(화) 삼학도호텔 관련 성명서 발표(밀실행정 중단하고 삼학도호텔건립 백지화하라)

· 11월 02일(화) 진도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기자회견

· 11월 04일(목) 목포과학대학교 협약패 전달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직장 내 고



· 11월 02일(화), 09일(화) 목포시 시내버스 시민참여단 토론회



· 11월 13일(토) 시민·회원과 함께 하는 생태기행(고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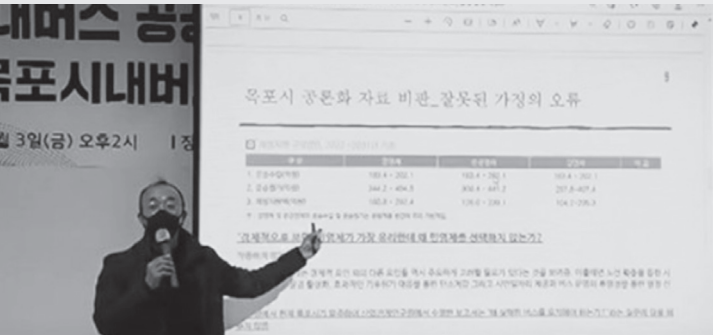
12

월

- 01일(수) 우수지 진입도로 공사 관련 교통행정과, 공사 진행 상황 확인
- 02일(목) [보도자료] 배포 (목포시는 우선협상대상자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내용과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조사(6차)
- 03일(금) 시민대토론회(목포시내버스 운영의 문제점과 대안) / 음식물쓰레기 간담회
- 05일(일) 압해도 민원현장 방문(건축폐기물 매립) 06일(월) 총준위 2차 회의
- 07일(화) 공원일몰제 진행상황 관련 공원녹지과 면담 / 조각공원 조명 관련 공원녹지과와 현장 점검
생태기행 안내 웹자보 발송 / 삼학도 유원지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08일(수) 탄소중립 캠페인(목포역, 원도심 일대) 09일(목) 탈핵강사 워크숍(1박 2일)
- 11일(토) 생태기행 다순구미둘레길(15명) / 청소년환경기자단 수료식
- 12일(일) 지구를 구하는 발걸음 모임
- 13일(월) 함께사는길 발송(44통) / 민원 관련 진도군 방문(하수종말처리장 시범 가동)
신안염전 노동 인권 사건관련 간담회 참여
- 14일(화) [성명서]삼학도호텔 사업이 부동산개발업자 담합비리기업의 꽃놀이패인가
삼학도 호텔 관련 정보공개청구(사업계획서, 평가위원 등)
- 15일(수) 쓰레기매립장, 선별장 방문(시네마라운지MM, 사무국) / 나주 영산강위원회 용역보고 회의 참여
제27회 녹색환경대상 이해송 자문위원 서한태환경상 수상
- 16일(목) 삼학도 민자 호텔 건립사업,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의 문제점 관련 광주MBC라디오 전화 인터뷰
목포시내버스 공영제 촉구 서명 요청 회원 문자 발송
- 17일(금) 전남지속가능 발전 컨퍼런스 참석
- 18일(토) 삼학도 호텔 예정부지 방문
- 20일(월) 시민포럼 취재요청서 언론사 발송 / 우수지 관련 하수와 면담
- 21일(화) 로그북 영화 상영(시네마라운지MM, 25명 관람) / 총준위 3차 회의 / 우수지 공사 현장 방문
환경운동연합 중앙위원회 온라인 회의
- 22일(수) 시민포럼(삼학도 민자유치 호텔 추진의 문제점 고찰, 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지사) / 부귀영화 모임
- 24일(금) 우수지 관련 하수와 면담 26일(일) 지구를 지키는 발걸음 모임
- 28일(화) [성명서]목포시민 안중에 없는 김종식 시장의 꿈수 행정의혹. 서산은행 재정비축진지구 재개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 뜨개마루 모임

· 12월 03일(금) 시민대토론회(목포시내버스 운영의 문제점과 대안)

· 12월 15일(수) 쓰레기매립장, 선별장 방문(목포환경운동연합, 시네마라운지MM)



· 12월 15일(수) 제27회 녹색환경대상 이해송 지도위원 서한태환경상 수상

· 12월 22일(수) 시민포럼(삼학도 민자유치 호텔 추진의 문제점 고찰)

(유)사람과사람/(주)보해양조/(주)수다방게스트하우스/(주)현성건설/게스트하우스 달꾸메/남악베스킨라빈스/대신아이시티(주)/더오래들/디자인그리다/디자인중앙/만인계마을기업/목포국도1호선독립영화제/목포대성신헌/영암일보(주)/우진건설/코롬방재과점_정철주/특허사무소 다임/해바라기치과의원/행복한 밥상/감의갑(장미선)/강덕수/강동호/강명곤/강석원/강선애/강성희/강영규/강영두/강제석/강종량/강창원/강철수/강혜정/고경석/고광업/고광진/고광현/고성철/고윤혁/고정화/공남은/곽신영/곽용열/곽재구/곽진용/구봉선/권가별/권수한/기재명/김가영/김경미/김경민/김경숙/김경완/김경태/김공경/김관오/김광미/김광수/김광호/김귀영/김근대/김근순/김기범/김기봉/김기철/김나영/김대중/김대현/김도관/김도형/김동욱/김동호/김명숙/김명중/김명화/김명희/김무영/김미영/김미정/김미화/김민국/김민규/김민지/김병욱/김보현/김상순/김상훈/김선남/김성길/김성륜/김성진/김성진/김성희/김세나/김수린/김숙자/김순미/김순영/김승현/김시연/김애숙/김애자/김양준/김영/김영남/김영민/김영범/김영식/김영운/김영제/김영준/김영현/김영호/김옥/김옥미/김완석/김용구/김용진/김용기/김원이/김유경/김윤임/김은미/김인순/김일용/김장원/김재민/김재영/김재혁/김정민/김정훈/김정희/김종국/김종수/김주재/김지수/김지숙/김진형/김진희/김창식/김창훈/김철주/김탁/김태근/김태수/김태웅/김판삼/김학주/김행연/김현근/김현숙/김현우/김현정/김형기/김형애/김형용/김혜정/김홍안/김화영/김환석/나광봉/나양명/나연운/나천귀/남명숙/남주연/노애란/노천우/류금순/류미현/류수영/류차정/마흥식/모원중/무관/문보현/문성중/문승현/문원규/문정임/문지영/문호/문효산/민경관/박갑수/박경봉/박경서/박경양/박경재/박권철/박금단/박기남/박기성/박기철/박대성/박동구/박동환/박문옥/박미덕/박미정/박민규/박배선/박병구/박상현/박성수/박성영/박성욱/박성원/박성준/박성현/박세륜/박소미/박안섭/박영윤/박영철/박용/박용일/박용호/박원배/박유정/박유진/박윤길/박은숙/박은정/박은화/박은희/박재신/박재홍/박정록/박종선/박종수/박종위/박지현/박진/박창수/박창우/박창현/박천웅/박최균/박필수/박현/박현경/박현숙/박현철/박혜숙/박화진/박희성/방창식/배동희/배영식/백동진/백성숙/백재봉/변옥숙/변재영/서경수/서병권/서연순/서연선/서영숙/서영옥/서정/서정만/서한배/서효택/설단숙/설지연/성보석/성상훈/소혜인/손민원/손봉현/손철주/손현/송광훈/송두호/송영미/송영준/송정미/신경우/신경희/신동영/신용주/신원/신원호/신현령/안명희/안수경/안정배/양덕수/양수민/양승미/양승희/양영숙/양정호/양주동/양진국/양창숙/양현주/양환/양효식/염미순/염승주/오경섭/오미선/오민임/오수진/오숙향/오승원/오영출/오영근/오재록/오하늘/오현주/우성주/위준철/유경호/유기성/유영근/유영순/유영업/유영창/유원석/유은경/유은숙/유지원/유혜정/유효진/윤기현/윤남/윤동준/윤선미/윤선영/윤성광/윤성수/윤승희/윤원희/윤인수/윤종인/윤종일/이경매/이경석/이경숙/이경아/이경택/이광봉/이기식/이동훈/이명숙/이명희/이미순/이방수/이봉섭/이상영/이성호/이성환/이승환/이수/이순용/이승용/이승우/이승익/이승환/이승환/이승희/이영숙/이영주/이용기/이용자/이용철/이우주/이원기/이일호/이재경/이재우/이재이/이재현/이정식/이종환/이준화/이지우/이지현/이진아/이진형/이창일/이창현/이충완/이학승/이현숙/이현승/이현정/이형광/이형완/이형주/이혜령/이혜용/임경숙/임성기/임성진/임은아/임은희/임재형/임정원/임지현/임지훈/임진옥/임창욱/임태삼/임혁/임효철/장관호/장근천/장근현/장동춘(박민아)/장복천/장영미/장유선/장이진/장재구/장진실/장향금/장희웅/전경남/전경란/전남실/전대열/전상보/전성철/전양수/전준수/전한솔/전형숙/정고운/정동욱/정병이/정성배/정성우/정수민/정순용/정연수/정연우/정연희/정영주/정영호/정옥례/정우영/정유나/정유미/정유나/정유안/정윤정/정인성/정인숙/정일/정일승/정재근/정종하/정중삼/정지범/정찬권/정철희/정현찬/정현권/정형석/조광운/조미정/조상현/조애련/조애순/조영규/조영인/조옥현/조완오/조용만/조원기/조이환/조재문/조철제/조혜향/조호빈/주성은/지이화/진성필/진지연/진택근/차선미/차용만/차용훈/채희준/최경만/최경수/최국진/최규광/최근욱/최명숙/최명희/최비호/최석원/최선국/최성국/최송주/최순재/최승은/최승희/최영선/최영란/최영숙/최영식/최영철/최혜화/최완수/최용선/최은규/최은기/최은녕/최은주/최이문/최정관/최정삼/최정훈/최진상/최진철/최철수/최태욱/최현영/최호봉/최화녕/최환석/추연성/하영성/한봉철/한양규/한은섭/허상진/허진홍/현인숙/홍갑석/홍선기/홍성혁/홍세영/홍정우/홍택용/황미숙/황민수/황선주/황순진/황형수/황혜미/

회비 납부
11~12월
2021년

수 입		금 액
항 목		
회 비	개인회비	8,216,000
	단체회비	425,000
소 계		8,641,000
사업수익		0
후 원 금		722,000
기타수익		670,000
이자수익		0
예 비 비		0

11월

- [후 원 금] • 후원회원 15만원
 • 디자인그리다(전용원) 후원금 25만원
 • 강지연 5만원
 • 씨네로드 후원금 27만 2천원
- [기타수익] • 워라벨근로시간단축 지원금 60만원
 • 일자리안정자금 7만원

당월수입금	10,033,000
전월이월금	6,204,914
합 계	16,237,914

지 출		금 액
항 목		
회 의 비	교육사업	178,850
	조사연구	0
	홍 보 비	0
	행 사 비	0
	연대사업	599,680
	역량강화	0
소 계		778,530
회 의 비	총 회 비	0
	위원회비	320,000
소 계		320,000
인 건 비	급 여	5,752,350
	복리후생비	1,296,400
	퇴직적립금	511,066
소 계		7,559,816
업무추진비	출 장 비	20,000
	활 동 비	130,000
소 계		150,000
사무관리비	비품구입비	0
	수 선 비	0
	도서인쇄비	536,000
	통신광열비	478,260
	소모품비	54,000
소 계		1,068,260
기 타	환경기금	100,000
	제세공과금	19,570
	보 험 료	100,000
	사무국 이전기금	0
	사단법인운영비	310,000
	사단법인준비기금	0
소 계		248,200
소 계		777,770
당월지출금		10,654,376
통장 잔액		5,583,538
합 계		16,237,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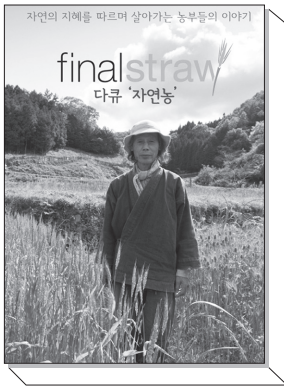
수 입		금 액
항 목		
회 비	개인회비	8,331,000
	단체회비	395,000
소 계		8,726,000
사업수입		0
후 원 금		2,170,000
기타수익		1,327,210
이자수익		2,507
예 비 비		0

12월

- [후 원 금] • 고삼석 2만원
 • 후원회원 15만원
 • 해바라기치과 200만원
- [기타수익] • 워라벨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10월 60만원
 • 워라벨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11월 60만원
 • 일자리 안정자금 7만원
 • 목포시 사회보험료 지원 57,210원

당월수입금	12,225,717
전월이월금	5,583,538
합 계	17,809,255

지 출		금 액
항 목		
회 의 비	교육사업	408,000
	조사연구	0
	홍 보 비	0
	행 사 비	242,250
	연대사업	374,190
	역량강화	0
소 계		1,024,440
회 의 비	총 회 비	0
	위원회비	73,000
소 계		73,000
인 건 비	급 여	5,752,350
	복리후생비	1,365,400
	퇴직적립금	511,066
소 계		7,628,816
업무추진비	출 장 비	369,500
	활 동 비	80,000
소 계		449,500
사무관리비	비품구입비	0
	수 선 비	0
	도서인쇄비	18,000
	통신광열비	217,000
	소모품비	70,400
소 계		305,400
기 타	환경기금	100,000
	제세공과금	10,890
	보 험 료	100,000
	사무국 이전기금	0
	사단법인운영비	0
	사단법인준비기금	0
소 계		390,580
소 계		601,470
당월지출금		10,082,626
통장 잔액		7,726,629
합 계		17,809,255



final straw (자연농)

다큐멘터리 | 64분 | 2015년 | 감독 : 패트릭 라이든 (Patrick M. Lydon) / 강수희

이 다큐멘터리는 '조화와 공존, 상생'이라는 자연농에 담긴 지혜를, 한국과 일본, 미국의 자연농 농부들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합니다.

자연을 개발의 수단으로만 여겨온 현대문명은 환경오염 및 자원고갈, 사회적·경제적 불평등과 갈등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도시의 평범한 직장인으로 지친 삶을 힘겹게 이어가던 두 사람은 새로운 길을 찾고 싶었고, 그 여정에서 우연히 만난 자연농에 큰 감동을 받아 직장을 그만두고 다큐멘터리 제작에 뛰어들어 4년만에 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땅을 갈지 않고, 풀과 벌레를 적으로 여기지 않으며, 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고, 자연의 흐름과 생명력을 따르는 자연농은 농사방식인 동시에,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자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맛있는 먹을거리를 얻으면서 생태계를 더 건강하게 하고 병든 지구를 회복시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직접 논밭에서 자연농을 실천하는 농부가 되지 않더라도, 도시 안에서도 자연농에 담긴 지혜를 품고 더욱 자연에 가깝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다큐 속 농부들은 들려줍니다.



질멸 : 희망과 절망의 갈림길에서

정혜윤 외 지음 | 워크룸프레스 | 2021년 7월 15일 출간

오늘 우리는 동물로서 말한다.

“지금처럼만 해라. 질멸의 성찬이 완성되리라.”

변화 없이는 절멸뿐,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잃어갈 것이다”

기후, 동물, 생태계 이슈를 다루는 창작 집단 이동시(이야기와 동물과 시)와 워크룸 프레스가 함께 펴내는 '이동시 총서' 첫 번째 책. 시인, 소설가, 예술가, 학자, 활동가 등 35명의 저자가 참여한 이 책은 도래할 '질병 X의 시대'를 맞아 절멸을 막기 위해 당장 필요한 변화와 행동을 촉구한다. 책이 말하는 바는 분명하다. 질병 X는 곧 동물 X의 문제임을 깨닫고, * 우리가 자연·동물과 맺어 온 관계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여기 「질멸 선언문」이 말하는 예언이 이뤄지지 않길 바라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희망이란 사실이다.”

P,188

인간은 동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래, 애도하기에도 벅찬 아찔한 규모의 동물을 학살했다. 동물을 먹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오늘날까지도 하루 평균 30억 마리의 동물 희생이 발생한다. 자연 현상에 의한 불가피한 희생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인간은 반성하고, 감사하며, 구차하고 가식적인 변명으로 양심을 위로하려 들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 식탐, 유희, 오락 따위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끼치는 행위가 설 자리가 없음을 말할 필요도 없다.



책과 영화를 보고 독후감이나 감상문을 보내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난방비 절약 꿀팁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한파 대비 안전수칙!

본격적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날들이 많아지면서 한파 대비 또한 중요해졌어요. 차가운 기온에 노출될 경우 저체온증과 같은 한랭질환이 나타날 수 있고, 수도관 동파나 농작물 냉해 등 다양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매서운 추위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한파 대비 수칙과 난방비 줄이는 꿀팁까지, 함께 알아보아요!

겨울 한파와 한파특보 발령기준 알아보기

한파란 겨울철에 기온이 급작스레 내려가는 현상으로, 한랭 기단이 위도가 낮은 지방으로 이동하며 발생합니다. 한파가 발생할 경우 한랭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농·축·수산 분야의 재산피해와 전력 급증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죠. 이에 한파주의보 및 한파경보 소식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한파특보와 한파질병 상식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파특보의 종류	
한파주의보	한파경보
10월~4월 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0월~4월 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겨울 한파,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

한파특보가 발령되었을 때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저체온증, 동상과 같은 한랭질환에 노출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한파 대비 안전수칙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1. 가정 내 대처법

외활동은 되도록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할 경우 방한기구(목도리, 장갑 등)를 꼼꼼히 착용해 노출 부분의 보온을 신경써주세요. 또, 빙판길 낙상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폭을 평소보다 좁히고, 굽이 낮은 신발을 신으며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심조심 걸어주세요. 만약 저체온 증세가 의심되거나 심하게 피로할 경우 지체 없이 병원에 방문,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밖에 수도가 동파되지 않도록 물이 조금 흐르도록 두고, 가스 등 난방시설이 고장난 경우에는 관리기관이나 지자체에 신고해주세요!

2. 운전 중 대처법

부득이한 외출로 운전해야 할 경우, 도로 결빙에 대비하는 것이 좋아요. 스노우체인, 염화칼슘, 삽 등 월동용품 미리 구비하고 출발 전에는 부동액, 배터리, 윤활유 등 자동차 상태를 확인해주세요. 운전 시에는 평소보다 저속 운전하고 차간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미끄러운 길이나 빙판길, 커브길에서는 가속과 멈춤을 자제해주세요.

3. 농어촌 거주민 대처법

농어촌에서는 가족이나 지역 주민과 함께 한파에 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먼저, 비닐하우스 등 동해 피해 방지를 위해 온실커튼, 축열 주머니 등을 미리 준비해주세요. 또, 눈이 쌓여 축사가 붕괴할 수 있으니 미리 보수하고, 양식작은 방풍망으로 보온조치하며 양식어류는 조기 출하해 피해를 예방해주세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참조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ecoprummy&logNo=222544679747&categoryNo=6&parentCategoryNo=6&from=thumbnailList> 참조



2022년 제26차 정기총회 개최 공고

목포환경운동연합 제26차 정기총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사전 서면결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일시 | 2022년 1월 26일(수) 오후 6시 30분

장소 | 만인계웰컴센터 2층

방식 | 사전 서면결의 방식(온라인방송)

기간 | 2022년 1월 18일(화)~26일(수) 오후 6시

안녕하세요 목포환경운동연합 회원 여러분!

세계적으로 기승인 코로나19로 인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고,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아 제26차 정기총회를 사전 서면결의 방식과 총회 당일 라이브 방송 참여로 진행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온라인 총회 안내(문자와 우편)

2 심의안건 검토
- 총회자료집 안건 검토(온라인 다운로드)

3 ① 수기 작성 후 사진 찍어 문자 제출(010-8243-3169)
② 수기 작성 후 팩스 제출(061-244-7345)
③ 문자로 발송된 인터넷 접속 후 온라인 작성 제출
※ 3가지 방법 가운데 택일

4 총회 당일 라이브 방송 참여
- 문자 발송된 방송 주소 클릭(문자 발송 예정)

- 사무국에서 문자 발송 → 온라인주소 자료집 다운로드 클릭 → 안건 검토후 서면결의서 작성 → 팩스, 문자로 보내주세요.
- 온라인상에서 직접 서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 새롭게 목포환경운동연합의 벗이 되어 주신 분들입니다.
환영합니다. (2021. 11. 11. ~ 2021. 12. 31.)

이영숙(소혜인) | 임효철(임경숙) | 박선옥(류은경) | 류용철(자발적)



목포환경운동연합

※ 목포환경운동연합과 강청은

포장재 간소화로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지키고자 합니다

물비누 | 세탁용 (1g당) : 8원 고행비누 | 세탁용 (250g) : 1,500원
 | 주방용 (1g당) : 9원 | 주방용 (250g) : 2,500원

집에서 사용하던 용기를 가져 오시면 필요한 만큼 구매가 가능합니다

▶ 판매시간 : 평일 (국경일 제외) 9:00 ~ 18:00 ▶ 문의 : (사무국) 010-8243-3169



장바구니를 사용해
지구의 짐을 덜어주세요



김 종 국 회원



포 마 린

혼다V6 / 야마하 V6·V8 커맨드 링크 전문점



FOUR MARINE
SINCE 1994

대표 최 은 기

T. 061-272-0118 / 010-9492-4707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220번길 21-11

해바라기치과

원장 이 해 송



T. 010-2654-2875, 061-279-2886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172
3층 해바라기치과(산정동)



일회용품 사용으로
자연은 허리가 휩니다.

손 현 회원

※ 이미지 참고(환경부)

서한태 환경상 수상

이해송 지도위원

(목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의장)의
서한태환경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 목포환경운동연합 회원 일동 |